

좋은 기분보다 진리를 영원하라

| 아디아산티 | 정성채 동국대 교수, 장자 한의원 원장 옮김 |

모든 개별적이고 구별되는 것들이 '동일한 그것'의 현현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진정한 깨어남 – 뒤따라오는 혼란

깨어남에 관해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깨달음(enlightenment)¹⁾을 상품처럼 팔아 보려는 상술처럼 들린다. 상품의 구매를 권유받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측면의 말만 듣게 되고, 심지어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들어야 한다. 깨달음을 사라고 외치는 장사판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는, 이 깨달음이란 것이 온통 사랑과 황홀경과 자비와 합일 등 온갖 고상한 경험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뿐이다. 거기에는 기상천외한 얘깃거리들까지 더해지면, 깨어남이란 으레 기적이나 신비한 힘 같은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게 되어버린다.

1) 이 책에서 '깨달음'은 깨어남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어떤 통찰(realization)을 의미하는 경우와 저자가 말하는 '머무는 깨어남', 곧 영구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궁극적 상태(enlightenment)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구분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역주)

그중에도 가장 흔한 상술은, 깨달음은 지복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신과의 합일을 이루기만 하면 영원한 황홀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깨어남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깨어남에 따르는 지복상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은 깨어남의 부산물이자 깨어남 자체는 아니다. 그 부산물을 좇아다니는 동안에 우리는 진짜를 잃게 된다. 이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적 수행법들은 대개 깨어남의 부산물만을 재생할 뿐이지, 깨어남 자체를 선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명상기법을 배울 때, 예를 들어 진언을 외운다든가 찬송을 부른다든가 하면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이 솟아나온다. 사람의 의식은 엄청나게 유연해서, 영적수행이나 기법 또는 고행 따위에 참가하면 깨어남의 부산물(지복의 상태나 열림의 현상 등)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깨어남의 부산물뿐, 정작 깨어남 그것은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

깨어남이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써 더 이상 깨어남의 부산물만을 좇아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수행을 통해 뭔가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얻어보려는 추구를 포기해야만 한다. 깨어남의 길은 어떤 긍정적인 감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깨달음이란 전혀 쉽지도, 긍정적인 것이지도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망상을 부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지니고 온 인식을 놓아 보내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망상들을 직시하는 것에조차 엄청난 저항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남의 원정길을 떠날 때, 지금 자신이 무엇을 향해 자신을 던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가르치는 사

람으로서 내가 학생들에 대해 비교적 일찍이 알게 된 사항은, 그들이 과연 진정한 실재에 관심이 있는가, 즉 이들이 정말 진리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그저 기분 좋은 정도를 바라는 것뿐인가 하는 것이었다.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은 갈수록 점점 더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과정은 자신의 일들을 정직하게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해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실재에서 실제로 이어져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 깨어남으로 손짓하는 진실된 그 목소리는 우리 안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다. 그 소리는 좋은 기분보다는 진리를 더 염원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 만약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 그저 당장의 좋은 기분을 원할 뿐이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멋진 기분을 원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망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저런 기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더 나은 기분을 원한다. 그건 인간의 경험적인 본능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쾌감은 되도록 많이, 고통은 되도록 적게 요구하도록 ‘배선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더욱더 깊은 충동이 있다. 나는 그것을 ‘깨어나고자 하는 충동’이라 말하고 싶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온갖 방식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깨어나고자 하는 충동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충동이다. 깨달은 스승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려다가는 장님이 되기 십상이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려 하지도 않게 된다. 일을 스스로 살펴보려 들지 않게

된다. 우리가 눈을 감은 채로 남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또는 오랜 역사가 있다거나 숭배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계명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우리는 결국 감감한 무지(無知)에 종착하고 만다.

깨어남 혹은 깨달음에 관한 또 다른 커다란 오해는, 그것을 뭔가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천지자연과 하나가 된다거나 바다 속으로 녹아든다거나, 또는 신과 합일된다거나 하는 경험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또한 깨어남이란 것이 무슨 엄청난 통찰, 예를 들어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든가, 또는 ‘실재’의 내부 메커니즘을 통찰했다든가 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영적 깨어남이란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신비 경험은 물론 아름답다. 여러모로 그것은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경험이다. 이 ‘나’는 항상 무언가와 하나가 되기를 추구한다. 사람들이 몰두하는 많은 영적 수련법들은 실제로 무엇과 하나로 녹아든다든지, 신을 본다든지, 의식이 시공간을 넘어 확대되는 느낌을 갖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신비적 경험을 얻게끔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신비의 경험은 깨어남과는 다르다.

물론 이 신비 경험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경험이 무엇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말도 아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런저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흔하다. 많은 경우 신비 경험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고적인 자아의 구조를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인 상대세계에서 신비 경험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깨어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의 경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에 대해 이

야기하는 것이다.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하나의 세계로부터 다른 하나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른 세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의자를 보는 것과 똑같이, 깨어 있는 사람도 의자를 본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볼 때, 깨어 있는 그 사람도 역시 같은 자동차를 본다. 차이점이라면, 완전히 깨어나 있는 사람은, 즉 이원성의 베일 저편에 건 가 있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르게 보이거나 유별나게 보이는 물건들이 근본적으로 똑같이 인식된다는 점이다. 의자를 보지만, 동시에 자신을 의자와 별개의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말 그대로 동일한 것의 한 현현(顯現)인 것이다.

진정한 깨어남의 징표는 구함(seeking)이 끝나는 것

진실되고 확실한 깨어남을 경험하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다. 그건 이제 끝난 얘기다. 진정한 깨어남의 징표는 구하는 행위가 종식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은 더 이상 밀고 당기고 하려는 흥을 느끼지 않는다. ‘구하는 자’는 그 나뉠이름으로 하나의 가상현실로서 기능하였을 뿐, 또 그렇게 사라져 간다. 어떤 의미에서, 구하는 자는 그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그는 의식, 혹은 ‘영’으로 하여금 꿈속 상태와의 동일시로부터 빠져나오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고, 본래의 존재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 준 셈이다.

만약 그 깨어남이 머무는 형태의 깨어남이라면, ‘구하는 자’와 ‘구함’

은 모두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다. 반면에 그 깨어남이 스쳐가는 깨어남이라면, 구하는 자와 구함은 녹아내리고 있는 도중이어서 아직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구하는 자가 녹아 없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영적인 행로를 걷는 이들은 온통 구도자(구하는 자)라는 자아상의 탈을 덮어쓴 채 살아왔을 것이다. 삶이란 문자 그대로 ‘영적 추구’로, ‘신, 합일상태, 깨달음을 향한 열망’으로 정의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별안간에 깨어남이 일어난다. 구하는 자와, 구함과, 영적 갈구에서 생겨나 쌓아올려진 모든 예고의 구조물들이 갑자기 사라져 없어진다. 우리의 자아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 – 별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 바라보이게 되면서 떨어져 나간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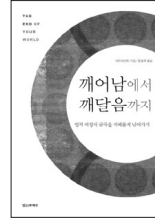
- 이 글은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아디아산티(Adyashanti)** |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생에서의 해방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권유한다. 그는 14년간 함께 공부해온 자신의 선사(禪師)의 요청에 따라 1996년에 가르침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많은 구도자들이 아디아산티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본성으로 깨어났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말을 어떤 전통이나 무슨 주의(ism) 같은 것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바를 통째로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리는 멈춰 있지 않다. 그것은 생동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관념으로 묶어놓을 수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진리는 모든 형태의 관념적 근본주의 너머에 있다. 당신의 본성은 초월적인 것으로서, 깨어 있고 현존하며 지금 여기에 이미 있다. 나는 단지 당신이 그것을 깨닫게끔 도우려는 것뿐이다.” 북부 캘리포니아 태생인 아디아산티는 그의 아내 애니(Annie)와 함께 살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강론과 주말의 심화코스, 그리고 묵인 수련을 주관하고 있다. 또 그는 가르침을 목적으로 미국의 다른 지역과 캐나다로 여행하기도 한다.

역자 | **정성채** | 1953년생으로 한의학 박사이자 동국대 한의대 겸임교수이다. 전남대 재학 시에 정신세계를 접하고,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였다. 광주와 대구에서 진료하였고 현재 서울의 장자한의원에서 진료하면서 영성과 건강에 관한 저서를 집필중이다. 옮긴 책으로 에픽테투스의 《지혜로운 삶의 원칙》이 있다.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영적 여정의 굴곡을 지혜롭게 넘어가기



아디아산티 지 | 정성채 역 | 정신세계사 刊 | 10,000원

영적 여정의 굴곡을 지혜롭게 넘어가기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영적 깨어남은 동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명상을 했다든가 특별한 수행복을 입은 사람들 같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중들도 영적 체험의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이 확장된 만큼 ‘깨어남’이라는 내적인 체험 또는 현상을 둘러싼 혼란과 오해와 왜곡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아디아산티는 영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로서, ‘깨어남’의 본질과 그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언어로서 가장 깊은 수준까지 펼쳐내고 있다.